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년도 하계총장세미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도 하계총장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12. 6. 28(목) ~ 6. 29(금)
-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주제 : 대학의 미래 방향과 과제

6. 28 (목)	시간	내용	장소
	14:30~15:00	등록	
	15:00~15:30	개회식 - 개회사 :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신임 총장 소개 - 주요사업 경과 보고	그랜드볼룸(2F)
	15:30~16:10	기조강연: 대학의 과제- 중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 - 홍승용 부의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16:10~16:30	Coffee Break	
	16:30~17:3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18:00~19:30	만찬	

6. 29 (금)	시간	내용	장소
	09:00~09:40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 • 대학가을화추진위원회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사학법대책위원회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국제화대책위원회	해당 세미나실 (별도안내)
	09:40~09:50	회의장 이동 및 Coffee Break	
	09:50~10:25	7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그랜드볼룸(2F)
	10:25~11:40	고등교육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 •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원 • 국공립대협의회 • 사립대협의회	그랜드볼룸(2F)
	11:40~12:00	객실 Check out	
	12:00~13:30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사업 등 정책 설명 • 오전(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그랜드볼룸(2F)

*상기 일정은 행사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교협 동정



2013학년도 수시모집 대입전형 일정 조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중 대입전형 일정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당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수시 미등록 총원등록 마감일이 '12. 12. 19(수)까지였으나, 이날은 “18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수험생 등록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 일정 중 수시모집의 등록기간, 미등록 총원 마감기간, 미등록 총원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당겨 수험생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시모집 등록기간	2012. 12. 12(수)~14(금)	2012. 12. 11(화)~13(목)
미등록 총원마감	2012. 12. 18(화) 21시까지	2012. 12. 17(월) 21시까지
미등록 총원등록 마감	2012. 12. 19(수)까지	2012. 12. 18(화)까지

감사업무·시설업무 담당자 과정 및 대학행정업무 능력 향상 연수 진행

[감사업무 담당자 과정]

□ 대교협은 6월 13일(수)~15일(금) 2박3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감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였다.



□ 이번 과정은 대학의 감사업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감사 정책방향과 실제/대학내부 감사제도의 이해(기본소양/감사계획/감사수행/결과활용), 감사계획서 및 감사증거,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대학회계의 이해,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적 성과 감사 방안, 2011년 사립대학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점검에 대한 사안별 점검사항 등 감사업무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대학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시설업무 담당자 과정]

□ 대교협은 6월 13일(수)~15일(금) 2박3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시설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였다.



□ 이번 과정은 대학의 시설업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시설물 효율적 안전 관리전략/국내외 대학의 녹색경영 동향과 실천사례/건축물 안전관리 사례/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전기 시설계획/건축과 시설관련 법규의 이해/강남대학교 그린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 보고 등 시설업무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대학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엑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학행정업무 능력 향상 과정]

□ 대교협은 6월 13일(수)~15일(금) 2박3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엑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학행정업무 향상 과정 연수를 진행하였다.



□ 이번 과정은 엑셀(중/고급)프로그램 활용에 관심있는 대학의 실무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엑셀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잘못된 업무 사례 이해하기/업무 자동화를 위한 표 설계 방법, 엑셀 표를 활용한 동적 범위 참조 방법, 유효성 검사를 활용한 데이터 제한 방법, 조건부 서식을 활용한 보고서 시각화 방법/피벗 테이블 보고서 기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활용한 보고서 생성 방법, 차트를 이용한 시각적인 보고서 구성 방법, 고급 차트 기법, 편지 병합을 활용한 자동화 서식 만들기, 고급 필터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 방법, 엑셀의 기능을 활용한 자동화 서식 만들기, 매크로 기록기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기법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포항 동지고 1·2학년생 130명이 12일 대구가톨릭대(총장 소병욱)에서 다양한 학과 체험을 했다. 고교생들은 전공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해보며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고교생들은 방사선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물리치료학과를 차례로 방문해 교수들로부터 전공 과정, 동아리활동, 해외 체험, 취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

□ 각 학과의 실습실 또는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방사선학과에서 실습장비를 통해 방사선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을 확인했고,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는 청력 검사를 직접 해보았다. 또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전기자동차를 타 보고 동력장치의 구동시험을 했고, 물리치료학과 실험실에서 운동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고교생들은 이날 대구가톨릭대의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고, 성한기 교무처장의 특강을 들었다. 또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고 기숙사 식당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캠퍼스의 낭만을 느꼈다. 이동수 입학처장은 “고등학생들이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전공과정과 대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 국립경상대학교(GNU·총장 권순기)가 캄보디아 왕립 농업대학교(총장 나오 부탄)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경상대학교는 6월 9-10일 이틀간 캄보디아 프놈펜시 다이아몬드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2012년도 캄보디아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하고, 캄보디아 내 대학과의 학술·학생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캄보디아 유학생 유치 활성화 추진단'(단장 정우건 대외협력본부장)을 파견했다.

□ 추진단은, 경상대학교 등 국내 24개 대학이 참가한 한국유학박람회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의 이미지를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상대학교 추진단은 본격적인 박람회에 앞서 6월 8일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를 방문하여 양 대학 간에 교직원·학생 교류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 대학교는 캄보디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왕실에서 설립한 9개 왕립대학의 하나로, 농업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직원 400여 명, 재학생은 1만여 명에 이른다. 특히 수의과대학은 교수 18명, 학부학생 200명, 대학원생 50여 명 등으로 수의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지난 2005년 8월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근섭 교수가 왕립농업대학교를 방문, 수의과대학과 왕립농업대학교 동물과학 및 수의약학부 간에 상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은 추진단이 이 대학을 방문하기 전에 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협정체결식에는 경상대학교 추진단과 나옴 부탄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 총장, 성 몸 부총장, 타브락 후온 대학원장 등 보직자와 국제교류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교류협정서에서 양 대학은 학술교류와 관련해 ▲교직원 교류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학술 및 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교환 ▲공동 연구활동 수행 ▲공동 협력 프로그램 수행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학생교류와 관련해서는 한 학기 또는 1년간 매년 2명 이내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 뿐만 아니라 이날 협정체결식에서 양 대학은 캄보디아 정부 또는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상대학교는 한국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성실히 안내해 줄 것과 이 프로그램에 우수학생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왕립농업대학교 학부생들을 위해 연구실습 프로그램 제공을 제의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 주최로 2012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회장 한국해양대 송화철 교무처장)가 14, 15일 이틀간 한국해양대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대학의 현안사항 발표와 더불어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단과대학장 임용(학장공모제),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대한 특강 및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 41회 『미래인재포럼』 개최 “중국의 인재 양성”

-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육성에 집중 투자
- 인재 특구를 거점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산관학 협력의 성공 모델 창출, 천인계획 등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 중국내 외자기업의 인재 육성, 해외화교 인재 유치 등에 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은 6월 14일(목) 오전 7시 롯데호텔에서 “중국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제 41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하였다.

*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미래 인재개발 및 R&D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정례 포럼으로 2005년부터 격월로 개최

□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국 정부의 인재 육성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목적이 제조 및 수출로부터 연구개발 및 내수시장 공략 등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설비 구입, 설비조작, 운용기술 습득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자산보다는 마케팅, 경영전략 수립, 인적자원 관리, R&D 공정 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자산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미국 Northwestern 대학에서 마케팅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동 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 중국의 인재 현황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현재,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수는 17만명(한국 2만명), R&D 인력은 229만명(한국 31만명), SCI 논문 수는 13만건(한국 4만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에 있는 유학생 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을 빠르게 기술 추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인재개발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중국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고급인재 양성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고 말했다.

◦ 첫째, 1990년대부터 211공정*, 985공정** 등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95~)

** '98. 5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집중적 재정지원으로 세계 일류대학 육성 계획 발표

◦ 둘째, 중관촌(중국의 실리콘밸리)과 시안 하이테크 개발구를 인재 특구로 선정하여 우수 인재 공급·활용의 거점으로 활용

◦ 셋째, 대학주도형(샤오반기업, 대학과학기술단지) 및 기업주도형(황밍 태양에너지 밸리) 산관학 협력의 성공모델 창출

◦ 넷째, 중앙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천인계획’, 상하이 시는 ‘1만명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 시행 등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

□ 김 교수는 역대 중국 정부의 인재육성 정책은 인재로써 국가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강국’,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발전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교흥국’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고, ‘10년 발표된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 요강’에 따르면, ‘20년까지 1억8천만 명의 국가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중 대학 졸업자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비율, GDP 중 인력자본투자 비중 등을 집중적으로 높일 계획이며, 중국 내 외자기업의 인재 육성, 해외화교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인재육성 전략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재중 한국유학생과 재한 중국유학생에 대한 인재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현재 고2학생 수능시험일 : 2013년 11월 7일(목)
- 현재 고2학생 수능성적통지일 : 2013년 11월 27일(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2013년에 보게 될 예정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 7일(목)에 보며, 성적은 11월 27일(수)에 통지될 예정이다.

□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11.1월)」과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11.12월)」에서 발표된 대로 2014학년도 수능시험은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이 없는 수능,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수능,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수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시험영역(과목)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A/B형)이 도입되며,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고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으로 출제한다.

※ 국·수·영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 국어B·수학B 동시 선택 제한

- 또한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축소(사탐/과탐 : 3과목→2과목, 직탐 : 3과목→1과목)되며,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된다.

- 시험영역(과목)별 출제문항수와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

교시	영역	문항수	시험시간(분)	비고
1	국어	45	80	• 'A'형, 'B'형 중 택 1 • 듣기 없음
2	수학	30	100	• 'A'형, 'B'형 중 택 1 • 단답형 30% 출제
3	영어	45	70	• 'A'형, 'B'형 중 택 1 • 듣기·말하기 : 22문항
4	사회탐구/과학탐구	과목당 20	과목당 30	• 최대 2과목 선택
	직업탐구	과목당 40	과목당 60	• 최대 1과목 선택
5	제2외국어/한문	30	40	• 제2외국어 8과목 및 한문 중 택 1

◦ 수험생이 받게되는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은 아래의 비율에 따라 9등급으로 표기된다.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성적통지표는 2013년 11월 27일(수)에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교부될 예정이다.

□ 향후,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시행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계획을 '13년 3월 중에, 시행세부계획을 '13년 7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